10.15686/fkl.2024..63.220 OPEN ACCESS

# 김말봉의 『별들의 고향』에 나타난 공창폐지운동과 이념의 분열

민선혜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과정

목차

1 들어가며
2 결속 뒷면에 부착된 균열
3 공창폐지를 둘러싼 당대의 목소리들
4 공창폐지운동을 통해 드러난 이념과 개인의 갈등
5 나가며

## 국문초록

본 논문은 공창폐지운동이 작가의 정치적 이념을 중심으로 이분법적으로 평가되어 왔던 선행연구의 흐름에서 벗어나, 김말봉의 『별들의 고향』에서 공창폐지 과정이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온전히 회수되지 못한 채 분열되는 지점들을 논한다. 공창폐지는 해방기 주요한 건국의제였지만, 이념 및 윤리뿐만 아니라 경제적 맥락과 궤를 같이하는 사안이었다. 김말봉은 여러 수필을 통해 공창폐지를 지지하는 한편, 공창폐지운동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던 남한의 남성 중심적 정치계를 비판하며, 공창폐지운동이 여성들의 문제로 주변화되었다는 사실을 폭로한다. 소설 속에서 주의와 주의자, 신앙과 신도의 모습이 지속적으로 분리되는데, 사회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는 인물들의 입을 통해 이상적인 것으로 이야기되지만 실제 특정 정치적 주의를 자신과 동일시하는 주의자들의 이념과 실천이 지속적으로 분열된다. 본 연구는 김말봉의 『별들의 고향』을 통해 해방기는 좌익과 우익의 이분법적 대립을 넘어 좌익과 우익이 모두 내적으로 분열되어 있는 혼란스러운 시기였으며, 이러한 맥락 속에서 공창폐지운동은 여성문제와 경제담론, 정치 담론이 교차되는 복잡한 이해관계의 장이었음을 확인하였다.

국문핵심어: 김말봉, 공창폐지운동, 공창제, 별들의 고향, 민주주의, 사회주의, 이데올로기 갈등, 이데올로기 분열

## 1 들어가며

김말봉(1901~1961)은 1932년에 등단하여 1959년까지 장편 26편, 단편 42편을 비롯한 시, 수필, 평론과 동화까지 다양한 작품 활동을 이어갔다. 주지하듯 김말봉의 작품세계는 '대중소설'과 '통속소설'로 규명되어 왔다. '대중'과 '통속'이 유동적인 개념으로서 연구자들의 자의적인 분류에 의해 사용되어 온 것[1]과 달리

1 문성숙, 「한국 대중문학론의 전개과정 연구」, 『대중문학과 대중문화』, 아세아문화사, 2007, 31~53쪽.; 진선영, 「인조견을 두른 모럴리스트」, 김말봉, 『김말봉 전집 8: 해방기

김말봉은 '대중소설'과 '통속소설'을 명확히 구분하며, 스스로를 '통속'이 아닌 '대중'소설 작가라고 확고하게 천명한다.[2] 이러한 맥락 아래에서 김말봉이 대중소설 문법 속에서 자신이 이끌었던 '공창폐지운동'을 적극적으로 소환하고 있음은 주목해 봄직하다.

공창폐지운동을 다룬 해방 후 발표된 김말봉의 장편 소설『화려한 지옥』과『별들의 고향』에 대해 현재까지 제출된 연구는 두 가지 뚜렷한 경향성을 보인다. 첫 번째는 일제강점기에 발표된 신문 연재소설『밀림』과『찔레꽃』의 영향 아래에서 통속성과 대중성에 집중한 연구이고 두 번째는 2000년대 이후 이어진 연구에서 목격되는 '공창폐지운동'의 소설적 재현에 대한 이분법적 평가이다.『별들의 고향』은 대중소설과 통속성이라는 자장 아래에서 민주주의 이념을 선에 배치하고 공산주의 이념을 악에 부여한 반공주의 계몽 대중소설[3]이자 사회역사적 사건 그 자체에 대한 숙고보다 인물들 간의 애정 추구를 중시하는 사회적 멜로드라마[4]로 평가 되어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최초로 스스로를 대중소설 작가라고 선언한 김말봉의 고유성을 보존하고 일제 말기와 해방기의 연속성 상에서 그의 작품 세계를 조망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유효하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와 작품을 독해하는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하는 대신 작품 속 대중성의 집중에 그치고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

'공창폐지운동'의 소설적 재현 양상에 대한 이분법적 평가는 소설의 주요 소

---

단편서사 모음』, 진선영 편, 소명출판, 2018, 259쪽에서 재인용.

2 대중문학은 이 초장의 풀처럼 어디까지나 신선하고 또 풍성한 영양소를 가져야 한다. 건전하고, 정의가 승리하는 "모랄" 아래서 대중이 진정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정시문화를 지향해 준다면 대중문학의 사명은 수행된다 해도 좋다. 대중문학 장편 가운데 어떤 대목에 강간이니 살인이니 절도니 강도가 도량하는 장면이 간혹 끼었기로니 이것은 음식의 양념처럼 구미를 자극 시키는 것 뿐이요 그것이 소설전체를 좌우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그 소설의 전면에 흐르고 있는 "모랄"이 무엇인가 바꾸어 발하면 그 소설을 지배하고 있는 정신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야 하는 것이다. 김말봉,「대중문학」,『경향신문』, 1958,03.05.

3 이병순,「김말봉의 장편소설 연구-1945-1953년까지 발표된 소설을 중심으로」,『한국사상과 문화』제61호, 한국사상문화학회, 2005, 72쪽.

4 최미진·김정자,「한국전쟁기 김말봉의『별들의 고향』연구」,『한국문학논총』제39호, 한국문학회, 2005, 301쪽.

재인 공창폐지운동과 더불어 작품의 주제의식과 결합한 작가의 정치사회적 이념과 종교를 중심으로 이어진다. 이와 관련하여,『별들의 고향』보다 앞서 발표된『화려한 지옥』에 대한 연구자들의 상반된 의견을 면밀히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왜냐하면 작가의 이념과 작품이 어떻게 결합되어 평가되기 시작했는지 살펴볼 수 있는 단초가 되기 때문이다. 소략하자면,『화려한 지옥』에 재현되고 있는 공창폐지운동에 대하여 최미진[5]과 최지현[6]은 대중소설이라는 문법을 통해 공창폐지운동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독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며, 여성들의 연대를 통해 여성 '국민'이라는 주체성을 가능하게 하는 시금석을 마련했다고 그 의의를 평가한다. 박선희[7] 역시 여성들의 생활문제에 집중하여 여성들 간에 존재하는 차별과 간극을 줄이고 공동체 형성의 가능성을 제안했다고 분석한다. 위의 연구들은 소설에 기입된 공창폐지운동의 재현 양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작가의 이념적 지향과 실천이 작품과 일치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반면 이와는 상반된 시각을 견지하는 연구 역시 존재한다. 배상미는『화려한 지옥』이 성노동자를 바라보는 차별적인 시선과 낙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분석한다. 여기서 주목할 지점은 소설 속에서 포착되는 공창폐지운동에 대한 한계를 작가의 정치적 입장과 결부시켜 분석하고 있다는 점이다. 배상미에 따르면 당시 우익 계열의 여성 단체들은 사창을 제외한 공창의 폐지만을 우선시하였으며, 성노동자들의 사회적 복귀에 대한 정책은 미미하였는데 이는 그 당시 공창폐지를 주도한 미군의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미군정 아래에서 공창폐지운동을 전개한 김말봉의 정치적 입장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화려한 지옥』은 이러한 우익의 정책적 한계가 고스란히 반영된 소설이며, 공창폐지정책의 근본적인 문제까지 묘파하지 못한 채 지식인 여성의 시선에서만 이루어지는 일방적이고 일차원적인 사회적 교화로서의 재교육의 강요에 그치는 한계를 보인다고 분

5 최미진,「광복 후 공창폐지운동과 김말봉 소설의 대중성」,『현대소설연구』제32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06, 116쪽.

6 최지현,「해방기 공창폐지운동과 여성 연대(solidarity) 연구-김말봉의『화려한 지옥』을 중심으로-」,『여성문학연구』제19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8, 288쪽.

7 박선희「김말봉의『佳人의 市場』개작과 여성운동」,『우리말글』제54호, 우리말글학회, 2012, 292쪽.

석한다.[8] 김말봉 소설에 기입된 공창폐지운동을 둘러싼 연구자들의 이분법적 평가에서 눈에 띄는 지점은 소설 속 공창폐지운동의 긍정성을 힘주어 이야기했던 연구들에서 근거로 제시했던 작가의 이념적 지향과 실천의 일치가 배상미에게는 작품의 한계를 이야기하는 근거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동일한 사실에 대한 각각의 연구들이 제시하는 상이한 입장은 소설 속 공창폐지운동과 작가의 이데올로기가 결합되는 양상의 단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참조점이 된다.

배상미의 연구에서 공창폐지운동의 한계의 원인으로 지목되었던 작가의 우익적 경향과 관련해서는 진선영과 서정자의 연구 역시 유의미한 분석을 제시한다. 진선영은 『별들의 고향』의 주제의식을 김말봉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연결지어 살펴봄으로써, 당위적 가치로서의 반공주의를 주장하고 있는 작품으로 규정한다. 그의 연구에서 특히 주목을 요하는 것은 이때의 반공주의가 자유주의=기독교주의=가족주의라는 하나의 궤 안에서 평가된다는 것이다.[9] 서정자의 연구는 『별들의 고향』을 반공 소설 이전의 반전(反戰) 소설로 규정하지만, 반전 소설의 형식 속에서 전쟁을 결정하고 대중의 의사를 무시하는 지배층으로 남로당을 지목하고 있음을 분석해낸다. 따라서 여전히 김말봉의 반전의식의 기저에는 반공 이데올로기가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10] 앞서 살펴본 이병순의 연구 역시 『별들의 고향』을 반공주의로 귀결되는 계몽적 대중 소설로 규정한 바 있으며. 이민영 또한 『별들의 고향』이 전후 여성 작가들의 반공 담론을 적극적으로 규명함으로써 계몽주의적 발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분석하며 소설 안에서 전개되고 있는 공창폐지운동이 우익 중심의 반공주의로 수렴한다고 평가한다.[11]

---

8 배상미, 「성노동자에 대한 낙인을 통해 본 해방기 성노동자 재교육운동의 한계-김말봉의 《화려한 지옥》, 박계주의 《진리의 밤》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제55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14, 334쪽.

9 진선영, 「한국전쟁기 김말봉 소설의 이데올로기 연구-〈별들의 고향〉을 중심으로-」, 『겨레어문학』 제55호, 겨레어문학회, 2015, 343쪽.

10 서정자, 「김말봉의 『별들의 고향』 (완본) 연구-한국전쟁과 반전(反戰)소설구조, 그리고 '별'과 '광명'의 의미」, 『여성문학연구』 제61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24, 208쪽.

11 이민영, 「전후 여성 작가와 열전사회의 반공담론-김말봉의 『별들의 고향』(1953)과 임옥인의 『월남전후』(1956)를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제202호, 국어국문학회, 2023,

다시 한번 배상미는 위와 같은『별들의 고향』을 둘러싼 반공주의 이데올로기라는 선행 연구들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2023년 제출된 그의 연구에 따르면 소설은 작가의 정치적 입장이자 이념인 반공주의를 설파하는 텍스트가 아니라, 오히려 공창폐지운동의 한계를 드러내고, 공창폐지운동에 가담한 우파들의 기만적인 모습을 고발하고 사회주의 사상의 필요성을 논하는 텍스트가 된다. 배상미는『별들의 고향』에 내재되어 있는 사회주의의 모습을 반공이 아닌, 전후 한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적 자원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12]

지금까지 제출된 선행 연구의 흐름 속에서 김말봉의 소설은 반공주의 혹은 사회주의라는 해방기 한국사회를 지배한 거대한 두 흐름 안으로 수렴된다. 그렇다면 어째서 김말봉의 소설에 대한 연구자들의 평가는 이토록 상반되는데, 그 중간지대는 상상되지 않는 것일까. 김말봉의 우익적 성향과 사회참여 운동 경험을 근거로 하여 소설에 재현되고 있는 공창폐지운동을 긍/부정으로 평가하는 것은 오히려 작품 안에서 포착되고 있는 당시 한반도의 역동성을 축소시키는 것은 아닐까. 두 개의 반대되는 이념 사이에서 진동하고 또는 회수되지 못한 채 초과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은 것일까. 본고는 이러한 질문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이 글은 공창폐지운동과 작가의 정치적 이념을 둘러싼 이분법적 평가로 귀결되는 선행 연구의 흐름에서 벗어나 김말봉의『별들의 고향』이 해방기 남한의 복잡하고 다층적인 정세를 포착하는 틀로써 공창폐지운동을 소환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소설 내에서 전개되고 있는 공창폐지운동에 대한 긍/부정의 평가 대신에 좌익과 우익진영에 각각 공창폐지운동을 대하는 양상을 비교하고, 공창폐지운동이 정치적 수사로 동원되는 과정 속에서 여성담론, 경제담론, 정치담론 등의 해방기의 주요 의제들이 2-3중으로 중첩되어 있는 사안이었음을 분석하고자 한다. 김말봉 소설의 의미이자 한계로 지목되는 반공주의 이데올로기를 설파하고 있다는 평가에서 벗어나, 작품의 표면상 전면화되고 있는 가치에 반하여 소설이 담아내고 있는 다양한 목소리들에 집중하여 좌우

158쪽.

12 배상미,「공창폐지 운동과 그 유산-김말봉의『화려한 지옥』과『별들의 고향』」,『현대소설연구』제92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23, 100쪽.

이데올로기의 대립으로 포착되지 않는 당시 해방기 한반도의 특수성을 밝혀내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분석을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는 김말봉의 작품을 포함한 다른 해방기 작품을 좌우 이데올로기로 평가하는 기왕의 흑과 백의 평가에서 벗어난 중간 지대를 폭넓게 발견해 내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더 다양한 관점에서 해방기에 대한 연구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을 최종 목표이자 추후 목표 과제로 삼고자 한다.

## 2 결속 뒷면에 부착된 균열

식민지 시기부터 전후에 이르기까지 한반도에서는 한 국가와 한 시대를, 더 나아가 세계와 사람을 이해하고 위치시키는 프리즘으로 줄곧 좌익과 우익이라는 이분법적 대립을 사용하였다. 격변하는 근대화와 국가 만들기의 과정 속에서 중립과 중도는 그 정체가 불명확한, 그래서 양쪽 진영 모두에게 위협적이고 불안정한 요소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지금까지도 무언가의 중간지대를 상상하는 일은 쉽지 않다. 하지만 해방 공간은 독립의 기쁨과 더불어 미군정이라는 신식민 아래에서 '진정한' 해방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감각이 동시에 공존했던 곳이었다.

이러한 인식과 감각에서 출발한 해방기는 여러 사람들의 정치적 활동을 촉발하였다, 250개에 달하는 정당과 단체가 등록되고, 경성에만 1945년 말까지 대략 100개의 정치적 단체와 20여 개의 신문사가 조직되었다.[13] 급증하는 정당과 정치 단체의 수가 보여주는 것은 해방기 한국이 양분법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사회였다는 것이다. 김말봉 역시 해방기에는 아나키스트임을 천명하였지만, 한국 전쟁 발발 이후에는 스스로를 민주진영 작가임을 선언하는데[14] 이는 복잡하고 다양한 정치 의제 및 국가 건설 담론을 주창하던 이들이 한국 전쟁 발발을 기점으로 모두 단일한 입장으로 수렴되어야만 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생각할 때 해방기와 한국전쟁기를 연속적인 시간적 배경으로 삼는 작품들

13 송남헌, 『해방 3년사 I -1945~1948』, 까치, 1985, 225쪽.

14 서정자, 앞의 글, 240쪽.

속에 기입되어 있는 좌우 이데올로기는 이분법적인 대립으로만 읽어낼 수 없으며, 서사의 표층에서 견지하고 있는 대의에 수렴되어야만 했던 하위의 다양한 목소리들을 읽어낼 필요가 있다.

『별들의 고향』의 표층 서사는 남한의 단독정부 수립과 한국전쟁을 거치며 남한 사회에 잠복해 있던 좌파 세력이 척결되고 반공주의로 대별되는 민주주의가 승리하는 구조를 취한다. 그러나 그 심층에서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종교적 신념은 인물들의 행동과 때때로 분리되고, 이념은 또 다른 이념과 결탁함으로써 굴절되고 왜곡된다. 『별들의 고향』은 좌우 이념 대립을 경진과 국진 남매 안에서 형상화함으로써 당시 한반도의 복잡한 정세를 더욱 극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대립 속에서 가족을 아무런 망설임 없이 총살하는 잔인한 좌익 인물 경진의 모습을 통해 공산주의는 타협하지 않는 잔인성과 더불어 반가족주의로 등치된다. 지명수배 되어 국진에게 체포당할 위협에 경진은 아픈 백웅과 함께 어머니 P여사를 찾아가 위험을 넘길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곧 정세가 뒤바뀌자 경진은 자신을 숨겨주었던 P여사를 체포하는 동시에 다락에 숨어 있었던 자신의 경험을 살려 천장을 총칼로 찌르며 다락에 숨어 있는 우익 인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찾아낸다. 이러한 경진의 모습에서 포착되는 것은 사회주의 이념과 그 이념을 수호하기 위한 분투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정치적 맹목이며, 이러한 정치적 맹목을 위해 비윤리적 선택도 주저하지 않는 폭력성이다.

> “송난이 동무가 좀 더 똑똑한 부인인 줄 알았더니…… 치정 노름이야.”
>
> “원한이 있으니까 그렇겠지요. 창열이가 송난이 동무를 배반했으니까…….”
>
> 철호가 웃으며 변명하는 것을
>
> “난 모르겠는데…… 우리는 연애라든가 남녀의 성문제 같은 것을 가지고 운운하는 것은 자본주의적 감정 유희라고 생각해요. 세계 적화운동을 목표로 하는 우리가 그까짓 사사로운 일에 시간이나 정력을 허비할 수는 없어요.”
>
> 장교는 눈살을 찌푸리며
>
> “적철 동무 좀 불러 주시오.”

하고 철호에게 명령하였다. 권총을 든 채 나오는 적철을 향하여

"인민재판도 아니고 군법도 아니고 도대체 무엇이요? 적철 동무 같은 분이 공사의 감정을 구별치 못한다면 인민군 전체의 위신이 상하는 것이오. 반공개적인 치정 연극은 해는 있을지언정 유익은 없습니다. 그런 것쯤은 아실 수 있는 적철 동무…… 반성해야 합니다."

적철을 고개를 흔들었다.

"그 점은 어제 정치보위부에서 가서 잘 타협한 것입니다."

"정치보위부에서 그래 그렇게 치정 연극을 하라고 명령한 일은 없을 상 싶은데…… 생각하여 보시우. 확실한 반동죄악을 공개할 생각은 아니하고…… 왜 모두 소아병 환자요, 자기비판하시오."[15]

영숙과 창열을 심문하는 과정에서 인민군 장교에게 심문의 태도와 방식을 지적당하는 송난과 적철의 모습을 통해 포착되는 것은 이들이 갖고 있는 '주의'의 근거가 정치적 이념이 아니라 사적이고 개인적인 감정에 근거한 원한에 가깝다는 것이다. 인민군 장교의 입을 통해 이들의 행위가 '정치'에 의한 정당하고 합당한 '처벌'이 아니라 '치정'으로 일축되면서 송난과 적철은 엄밀한 의미에서 좌익에 부합하지 못한 인물이라는 것이 폭로되며, '주의'를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주의자'들의 한계가 드러난다. 이에 더하여 "피덕칠이가 알고 있는 빨갱이라면 독립 기념을 축하하고 나랏일을 근심하는 민족…… 특별히 가난한 농민과 노동자를 사랑한다고 외치는 그들을 왜 빨갱이 빨갱이 하면서 싫어하는 것인지 그 까닭을 알지 못"(291쪽)한다는 덕칠의 목소리를 통해서도 해방기 남한 사회의 좌익 진영이 그 주의를 실천하는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폭력성으로 인해 그 한계가 발생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덧붙여 피덕칠이라는 인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좌익과 우익 진영 사이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그 '전향'의 모습은 그 당시 남한 사회의 좌우익 이념이 완전히 단절되거나 분리된 것이 아니라 사회의 역동성 속에서 유연하게 작동했던 것이며, '생활'로부터 격리되고 멸균되어 깨끗하게 지켜져야 할 이념이 아니라 오히려 '생존'의 문제에 더 가까운 것이었음을 확인할 수

15 김말봉, 『김말봉 전집 6: 별들의 고향』, 진선영 편, 소명출판, 2016, 384-5쪽.

있게 한다. 이는 일상과 현실 차원에서의 이념과 정치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이러한 이념과 정치성이 어떠한 원인과 과정을 거쳐 형성되고 있는지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정치적 이념의 추구 과정에서 부차적인 것으로, 그리하여 이념 갈등의 결과로서 독해되어 온 이러한 '사적 감정'의 갈등 양상과 '생존'의 문제가 오히려 정치적 지향과 이념을 형성하게 만든 핵심 동력으로 작동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소설에 등장하는 사회주의가 폭력성으로 인해 왜곡되었다면, 우익 진영의 이념은 이념 그 자체가 다른 이념들과 부착됨으로써 왜곡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소설에 등장하는 우익 진영의 이념은 민주주의와 자유주의로 주창되지만, 그 아래에서는 반공주의, 가족주의, 기독교주의가 동항을 이루게 된다.[16] 여러 이념적 가치가 하나의 층위로 부착되는 과정 속에서 우익 이념은 또 다른 전체주의로 굴절되는 양상을 보인다. 서사가 진행됨에 따라 우익 진영의 이들이 국가 건설이라는 의제 아래에서 정확히 어떠한 정치를 수행 및 실천하고 있는지, 이들이 만들어가고자 하는 한국은 어떠한 지향점을 추구할 것인지 명확히 제시되는 대신, 창열을 통해 그가 기독교에 완전히 회귀하게 되는 모습이 우익 진영의 정치를 대체한다. 따라서 소설 속에서 민주주의의 이념은 자유주의로 대변되지만, 이때 자유의 의미는 명확히 제시되지 못한 채 여전히 배제의 논리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체주의적 굴절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민주주의의 또 다른 얼굴로 등장한 기독교주의가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

> "소위 교회에서 중견 분자라는 사람들의 생활! 우선 우리 아버지부터 이 해타산에만 눈이 어두워 버둥거리는 것을 볼 때 난 침 뱉고 싶어요. 예배당에 나오는 남자 집사님들은 모두가 마카오 양복을 말쑥하게 뽑아 입고, 여자 집사님들은 유똥이며 벨벳이며…… 그들이 의복 전람을 시키러 오는데 어느 가난한 사람이 얼씬이나 하겠어요?"
>
> "그래서?"
>
> "그래서 나는 기독교가 싫어졌어요. 기독교는 현대의 시스템에서 내

16 진선영, 앞의 글, 342쪽.

가 가장 조롱하고 멸시하는 단체가 돼 버렸어요.”

“넌 기독교와 기독교인을 혼합해서 말을 하는 모양인데…… 기독교인이 타락하였다고 기독교까지 멸시할 것인지…… 냉정히 생각해 보았니?”

“결국 한 개의 종교나 사상을 받드는 그 인간으로서 그 사상의 본질을 알 수 있지 않아요?”[17]

창민과 창열의 대화에서 드러나는 것은 분명한 신앙과 신도의 괴리이다. 기독교의 본질적 가치로부터 멀어지는 교인들에 대한 창민의 비판에 대해 창열은 “교인이 달라도 종교의 본질을 변할 리 없”[18]다고 반박한다. 하지만 창열의 반박은 작금의 기독교의 폐단과 사치에 대해 어떠한 해결 방안도 내놓지 못한 채 마무리된다. 또한 결말에 이르러 살아남은 우파의 입을 통해 전달되는 별들의 의미를 통해 기독교적 인본주의의 가치는 더욱 허약해진다. 창열은 자신의 부인을 죽음으로 몰고 간 범인에게 사형을 감해 달라는 진정서를 보내는 언더우드 박사를 통해 ‘원수를 사랑하라’는 기독교적 가치를 목격하고 감화된다. 그러나 결말에 이르러 ‘별’이 되는 인물들은 모두 철저하게 공산주의 가치를 따르지 않았던 인물들에게 배당된다. 이를 통해 드러나는 것은 전쟁으로 인한 죽음이 공평하게 애도되지 못한 채, 죽음에 차등적 의미가 부여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우익 이데올로기와 합치되는 기독교주의의 본질은 과연 무엇인지, 정치이념적 가치를 뛰어넘지 못하는 종교가 과연 어떠한 의미에서 종교가 될 수 있는지 묻게 되며, 적을 사랑하라는 기독교적 실천을 몸소 보여주고 있는 언더우드 박사와 이들 사이의 괴리가 강조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별들의 고향』속에서 포착되는 이러한 민주주의 = 반공주의 = 가족주의 = 기독교주의의 부착이 작가의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이나 소설적 설정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오히려 당시의 한반도의 정세를 핍진성 있게 재현한 것에 가까운데, 실제로 한국 사회는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강하

17 김말봉, 앞의 책, 2016, 298-9쪽.

18 김말봉, 앞의 책, 2016, 301쪽.

게 반공, 친미, 기복이라고 하는 3위1체적 삶의 원리를 수용하게 되었으며[19] 기독교 신앙 또는 신자의 행세가 곧 반공의 보증의 수표로 작동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과정 속에서 각기 다른 층위를 갖고 있는 정치, 외교, 경제, 종교가 하나의 층위로 융합되게 된다. 자본주의는 민주주의의 다름이 아니게 되고, 자본주의는 친미의 다름이 아니게 되는 것이다. 각기 다른 이해관계와 맥락 및 역사를 가진 사안들이 '반공'이라는 커다란 하나의 이데올로기의 궤에 포섭되는 과정 속에서 이 모든 이념들을 하나의 질서로 받아들여야 하는 주의자들에게서 주의는 주의 그 자체와의 분리되고 모순되는 지점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소설 속에서 주조되고 있는 좌우익 이념에 따른 인물들의 갈등 구조 속에서 자꾸만 발생하는 모순과 균열은 스스로를 '순수귀신'에 반하는 '대중소설 작가'로 칭했던 김말봉의 창작론과 연결지어 생각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대중독자가 아닌 '소설가 자신'을 위하는 순수문학과 순수문학 작가들의 선민의식과 우월성, 대중과의 차별의식을 견지하는 소설 쓰기 대신에 대중, 즉 많은 민중과 독자들을 위한 글을 쓰겠다는 김말봉의 작가적 의식 아래에서 소설은 매끄러운 이념의 대립 대신에 그 이념 사이에서 융기하는 모순점들을 짚어내며, 사실 그 당시 대중들에게 '이념'의 문제란 지식인 작가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순수'한 형태의 무엇이 아니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김말봉의 『별들의 고향』에는 당시 남한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자유주의와 공산주의로 단일하게 수렴되지 않는 장면들이 지속적으로 목격된다. 이는 해방기의 다양한 정치적 의제들이 하나의 커다란 이념으로 수렴될 수밖에 없던 상황을 반증하며, 단일한 이념으로 정치적 다양성을 모아야만 했던 해방기와 한국전쟁기 사이의 역동적이고 긴박한 정치적 상황을 소설이 진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소설은 좌익과 우익 모두의 이념적 모순과 실천적 한계를 드러냄으로써 이념의 절대적 권위에 대한 회의와 비판적 시각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표면상 텍스트가 견지하고자 했던 입장으로부터 자꾸만 분리되어 형성되는 위와 같은 모순 지점들은 소설 속에 전개되고 있는 공창폐지운동을 통해 더

19 강준만, 『한국현대사 산책-1950년대 편: 6·25전쟁에서 4·19 전야까지 2권』, 인물과사상사, 2004, 113쪽.

욱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 3 공창폐지를 둘러싼 당대의 목소리들

해방 이후 떠오르는 수많은 건국 의제 중에서 공창폐지는 좌익과 우익이 합의한 몇 안 되는 중요한 건국의제였음을 부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조선 사회에서 '공창'은 일제의 식민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20] 공창폐지는 해방 후 남아있는 식민 잔재를 청산하는 일의 다름이 아니었다. 그러나 남한 사회에서 공창제가 폐지에 이르기까지 여러 고초를 통과해야 했음을 당시 민정 장관 안재홍의 인터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칠백만원사건 나와 관계없다."라는 제목으로 실린 1948년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안재홍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나는 그 진상의 규명을 사직에게 위촉하고 있으므로 시일을 더 기다림이 당연하나 잡음이 너무 심하기로 이에 일언 변백키로 한다. 나는 동 금액 중 일부라도 받은 일 없고 받을 의사도 단연 없었다."[21] 그렇다면 안재홍이 받은 적 없다고 말하는 이 칠백만원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공창폐지 이후 남은 유곽과 창기들, 더 나아가서는 사창에 대한 정책을 논하기도 바쁜 이 시기에 칠백만원은 무엇이기에 문제가 되는 것일까. 이는 당시 공창폐지를 둘러싸고 벌어진 뇌물 수수 사건과 관련이 있다.

> 소위 칠백만원 사건이란 어떤 것이냐. 지난 겨울 입법의원에서 말썽이 나가지고 불미한 사건에서도 더러운 것만은 세상이 다 알고 있다. 군정

20 일제는 1916년 〈대좌부창기취제규칙〉을 제정하며 조선에서 공창제를 확립하였다. 국가가 성매매를 공인하고, 식민지 지배의 통치 체제로서 여성의 신체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이후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공창폐지를 위한 운동이 진행되었으나, 일제강점기에 공창제는 폐지되지 못하였으며 1948년 2월 14일 미군정에 의해 공식적으로 폐지된다. 윤은순, 「일제강점기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공창제도 폐지를 위해 전개한 사회운동」,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024.11.15.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78007〉

21 「칠백만원 사건 나와 관계없다.」, 『경향신문』, 1948,03,09.

당국은 그 동안 이를 발표 할듯할듯하면서 오늘까지 미루어 온 것만으로도 공연히 의문을 더하게 해오든 터에서 지난 팔일 딘 군정장관은 기자단회견시에 이 사건을 발표 한다면 번다한 세계 이목에 조선의 불명예로운 인상을 남길 것을 생각하야 발표치 않으리라고 언명하야 도대체 이 사건이 무엇인가에 의문을 새롭게 하는 동시에 군정당국에 대한 우리의 의아한 느낌을 더 하게할 뿐이다. (…) 이미 전해온바 사건의 수괵은 폐창에 관한 입법을 좌절 식히기를 위하야 포주들이 창녀들의 고혈에서 짜낸 거액의 금정을 모모방면에 실시하여 그 결과 입법의원을 중심으로 한 소위 유지명사들이 이에 결탁되어있다는 해방 후 남조선 군정하에서 발생된 최악질의 수회 사건인 것임을 세상이 다 아는 바로 (…) 개개인의 악으로 해서 죄 없는 다수국민이 왜 그 불명예를『조선의 것』으로 뒤집어 써야하느냐 군정장관의 지나친 노자심을 우리는 조금도 이해할 수 없다. 사건을 솔직히 발표함으로써 조선의 정의를 옹호하며 순박한 무명의 국민들과 벗이 될 것을 생각한다.(강조:인용자)[22]

공창폐지 입법을 방해하기 위해 입법의원들에게 칠백만원의 뇌물을 주었던 이 사건은 그 당시 민정 장관이 나서 직접 해명해야 했을 만큼 정계의 많은 이들이 연루되었던 사건이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주목할 점은 이 뇌물이 포주를 넘어서 창녀들에게서 나왔다는 점이다. 포주들의 협박에 의한 것인지, 일부 창녀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를 통해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공창제에 달라붙어 있는 여러 경제적인 맥락이다. 이는 공창제가 그 당시 남한 사회에서 당장의 인본적 가치를 내세우며 중지시킬 수 없을 만큼 경제활동의 주요한 부분이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공창제 폐지 전, 1947년 경향신문에서 실시된 '당사자'의 인터뷰[23]를 통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기자와 문답 형식으로 이루어진 이 인터뷰에

22 「칠백만원 사건 발표하라」,『조선일보』, 1948.07.13

23 김말봉,「새해의 함께 햇빛 보게 될 공창굴의 색시들은-서울만 육백여 명 그들을 말한다」(『경향신문』, 1947.11,16),『김말봉 전집 8: 해방기 단편서사 모음』, 진선영 편, 소명출판, 2018, 239쪽.

익명으로 응한 '공창굴의 색시'는 공창제 폐지에 대해 그다지 긍정적인 입장을 견지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인신매매금지령 이후 벌어졌던 이들과 비슷한 일이 공창제 폐지 이후에도 벌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공창들이 현재의 노동 환경에 익숙해져 있어 공장과 같이 힘들고 열악한 환경의 일을 견디지 못할 것이라는 자가 진단이다.[24] 유곽의 일이 공장과 같은 저임금 고강도 노동보다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소위 '돈이 되는 일'로 여겨졌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창제를 폐지한다는 것은 '포주'들에게도 '공창'들에게도 경제적 이해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였던 것이다.

공창폐지연맹의 위원장이었던 김말봉의 여러 수필과 칼럼들에서도 그 당시 공창폐지를 둘러싼 여러 목소리를 확인할 수 있다. 우선 김말봉의 글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그가 '공창제'를 노동이나 인권의 문제라기보다 보건과 위생, 풍기문란의 문제로 접근했다는 것이다. 그는 공창으로 인해 만연해질 성병이 성년기의 아들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가정을 파괴할 것은 우려하며 "국제 매독이라는 불치의 성병"에 "민족의 흥폐와 역사의 성쇠"가 걸려있다고 이야기한다.[25] 이러한 김말봉의 시각은 분명 성매매 여성들을 타자화하고 이들을 정상사회의 위협 요소로 간주한다는 한계를 지난다. 그러나 이러한 김말봉의 접근에서 눈여겨볼 지점이 있는데 그가 바로 이 성노동자들이 '가장'이었음을, "이들이 빵을 얻는 방도가 없다면 그의 딸 그의 누이 그의 아내가 빵을 찾아 거리에 나오게 된다"[26]는 점을 짚어내며 공창제는 당시 남한 사회의 실업 및 노동시장의 문제와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안이라는 것을 진단한 것이다. 그에 따르면 여성에게 허락된 일자리는 주로 여관 접대원, 주점급 카페업태부로 사실상 "이름을 달리한 창녀"[27]들의 일자리뿐이었다. 김말봉은 이러한 폐쇄적인 여성의 노동 시장을 해결하지 못

24 그러므로 공장 같은데 가더라도 정직하게 일하겠다는 보담 어쩌면 감독의 맘을 흘겨서 쉬운 일을 맡아 볼까 혹은 수입을 더 많이 보태어 볼까 하는 생각만이 움직이기 쉬울 것이니 제들 같은 사람이 하나라도 끼우는 그 공장은 매우 소란해질 것 입니다.; 위의 책, 238쪽.

25 김말봉, 「미혼인 젊은 남녀들에게」(『부인』 2권 6호, 1947.9), 앞의 책, 2018, 155쪽.

26 김말봉, 「[공창폐지 일년특집] 공창폐지와 그 후 일 개년(個年)」(『연합신문』, 1949.2.22.~24), 앞의 책, 2018, 210쪽.

27 위의 글, 207쪽.

하면 공창폐지 이후에도 공창은 사창의 모습으로 다시 재등장할 것이라고 예견한다. 따라서 김말봉이 공창에만 관심을 가지고 사창의 문제는 등한시했다는 선행연구에는 이로써 반박한 논거가 생긴다. 공창폐지 전에는 김말봉이 공창의 문제에 집중했던 것이 맞겠으나 그 이후에는 "일체의 사창을 검진하고" "사창이 짊어지고 있는 가족 부양"[28]의 문제를 언급하는 등 사창 근절을 위한 방법도 모색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김말봉에게 있어 공창과 사창은 각기 다른 문제라기보다, 남한 사회에서 성매매 완전 근절을 위해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문제가 가까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시장의 태도는 항시 우유부단이었다. 우리 연맹의 대책 성안이 시부녀과를 통하여 시장에게로 가면 시장은 늘 완곡히 거부하였다.
>
> 예를 들면 공창을 수용할 유곽 접수 문제에 있어 관재처에서는 시가 접수하는 형식을 취한 뒤에 그것을 희망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지시하였으나 시에서는 하등의 적극적 협력이 없었다. 또 그뿐만 아니었다. 공창의 구호자금을 염출할 방침에 있어서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 안을 제출하였었다. (…) 그러나 시공관을 사용할 편의를 시에서는 완곡히 거절하였다. (…) 이것도 시의 반대로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29]

김말봉은 그 당시 공창폐지운동을 지원하지 않았던 남한 우익 정치계에 대한 비판도 서슴지 않는데 그는 당시 서울 시장 김형민을 호명하며, 공창폐지에 대한 지원 부재는 물론이거니와 어렵게 마련한 방침조차 협조하지 않았음을 폭로한다. 또한 축첩제와 더불어 공창폐지에 대해서 그 당시 남성 입법의원들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고[30], 여성들이 해결해야 하는, 여성들만의 문제로 게토화시켰음

28 김말봉, 「공창폐지와 그 후의 대책」(『민성』, 제5권 10호, 1949,10), 앞의 책, 2018, 214-5쪽.

29 김말봉, 「[공창폐지 일년특집] 공창폐지와 그 후 일 개년(個年)」(『연합신문』, 1949.2.22.~24), 앞의 책, 2018, 206쪽.

30 숫제 축첩법 반대안에다 과반수의 반대로 부결을 시켜놓았으니 이런 남자들을 믿고 살아

을 지적한다. 따라서 그 당시 공창폐지는 여성 입법의원 '박현숙'에 의해 제출되었으며, 사창 방지 정책 역시 여경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되었다.[31] 따라서 당시 정치계의 지원 부재로 인해 공창폐지연맹은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고, 이것이 공창폐지이후 발생할 사창 근절의 문제로까지 이어졌음을 밝힌다. 남한 사회에서 공창폐지는 그 안과 밖으로 무엇보다 '돈'의 문제였다. 좌우익의 이념 혹은 윤리에 대한 문제라기보다 '여성들'이 해결해야 하는 '여성들'의 문제로 여겨졌고, 무엇보다 당면한 경제적 이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더 가까운 문제였다.

이처럼 해방기 한반도에서의 공창폐지는 단순히 성매매 제도 폐지 이상의 함의를 가지며 해방기 한반도의 특수성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이 시기는 식민지 잔재 청산과 민족주의적 열망, 경제적 현실과 정치적 부패, 젠더 문제와 구조적 차별이 얽혀 있던 복잡한 시기였다. 이러한 요소들은 단순히 공창폐지운동의 과정을 보여줄 뿐 아니라, 해방기 한반도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인 모순과 한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4장에서는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이념의 균열이 사회구조 및 자본과 이어지는 사안이었음을 이야기하며, 이러한 균열 지점으로서의 공창폐지운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 4 공창폐지운동을 통해 드러난 이념과 개인의 갈등

조선에서 성매매가 법적으로 제도화된 것은 1916년 일제에 의해 공표된 〈대좌부창기추제규칙〉을 통해서이다. 일제의 식민 지배 정책의 일환 중의 하나로 공창제가 시행되면서 국가가 성매매를 공인하기 시작한 것이다. 1919년에 일제강점기에 공창 폐지를 가장 먼저 주장한 집단은 선교사들이었고 1920년대 중반부터 조선인에 의한 공창 폐지 운동이 본격화되었으며, 이때에도 여전히 기독교계가 폐지 운동을 주도하였다. 폐지 운동의 또 다른 주요 집단은 사회주의 집단이었는

갈 우리나라 여설들의 팔자로 어지간히 기구한 모양이다.; 김말봉, 「[여권의 확립 : 도덕적 견지 새 술은 새 부대에」(『부인경향』, 1권 1호, 1950,1), 앞의 책, 2018, 175쪽.

31 김말봉, 「새해의 함께 햇빛 보게 될 공창굴의 색시들은-서울만 육백여 명 그들을 말한다」(『경향신문』, 1947.11.16.), 앞의 책, 2018, 236쪽.

데 이들은 계급적 관점에서 공창을 비판하면서, 공창 자체보다는 자본주의 타파라는 사회제도 개혁에 힘을 기울일 것을 주장하였다.[32] 그러나 여타 조선인 사회운동에서는 공창제가 식민 체제의 산물로서 폐지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 속에 활동에 소극적이었고, 한반도에서 공창제는 공식적으로 해방 이후 1948년 미군정에 의해서 폐지된다. 그러나 미군정 역시 비공식적으로는 성매매 여성을 등록시키고 이들에 대한 정기적인 검진을 시행, 성매매 특별 구역을 설정하는 등 실질적으로는 성매매를 허용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한국 사회에 현재까지 존재하는 '위선적 금지주의'는 미군정의 정책에 뿌리를 두고 있다.

47년 12월부터 한국전쟁 발발 이후를 배경으로 다루고 있는『별들의 고향』은 공창폐지론이 공창폐지 연기론으로 변질된 상황을 상세히 묘파한다. 소설은 표면적으로 공창제 폐지라는 사안을 두고 창열과 오덕수를 위시한 우익 진영과 적철과 송난을 위시한 좌익 진영의 갈등 양상을 묘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서사가 진행될수록 진영 갈등은 점차 후경화되며 공창제 폐지를 둘러싼 각기 다른 개인들의 목소리들이 경합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우선 창열을 살펴보면, 그는 시종일관 공창폐지연기에 반대하는 인물이다. 창열은 총 두 번의 '복수심'에 의해서 공창폐지를 지지하게 된다. 그는 송난에게 마음을 거절당하고 만나게 된 창녀 연심과 사랑에 빠져 미래를 약속하게 된다. 하지만 연심이 자신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다른 남성을 접객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연심으로 인해 '성병'에 감염되게 된다. 이 지점에는 그는 처음으로 공창폐지를 지지하게 된다. 자신에게 성병을 감염시키고, 배신한 연심에 대한 복수심으로 "손실에 대한 증오감 내지 복수감"[33]에 의해서 즉 공창폐지운동에 뛰어들게 되는 것이다. 이런 창열로 하여금 다시 한 번 공창폐지에 대한 의지를 다지게 만드는 것은 연심의 죽음이다. 첫 번째 결심이 연심에 대한 복수심에 의해 촉발되었다면, 두 번째 결심은 연심을 죽음으로 몰고 간 유곽에 대한 복수심이다. "연심의 목숨을 스스로 끊어 버리도록 만든 그 유곽이 때려

32 박정애,『일제의 공창제 시행과 사창 관리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2009, 17쪽.

33 김말봉, 앞의 책, 2016, 53쪽.

부서질 때까지 나는 싸울 것이다.”[34]라는 창열의 다짐을 통해 읽어낼 수 있는 것은 창열에게 공창폐지는 이념이나 윤리의 문제라기보다 사적이고 개인적인 복수의 수단으로 기능한다는 것이다. 덧붙여 연심이 자살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가 유곽의 노동 환경이나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창열과의 관계가 끝났기 때문이라는 점을 상기할 때, 창열이 공창폐지운동에 투신하게 되는 것은 그 자신이 느끼는 죄책감을 감소시키기 위한 행동이라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오덕수는 창열과 더불어 소설 속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우익 인물이다. 그는 여러 유곽에 투자한 포주이자 공창폐지연기에 찬성하는 인물이다. 오덕수의 행보에서 눈여겨볼 지점은 그가 창열과 반대되는 입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공창폐지 강연’에서 연설하는 창열의 모습을 보며 송난과 맞선을 보이려 한다는 점이다.

> “정말이야 내 숫한 사람을 많이 보았지만 태도며 음성이며 고만한 젊은 애는 나 처음 보았어. 자네 한 번 만나 보게. 그래서 송난이와 맞선을 보이고 말야 잘하면 우리 편을 들어주지 않겠나…… 알겠지?”[35]

이러한 오덕수의 말로 하여금 짐작케 하는 것은 그 당시 남성들에게 공창폐지가 이념적으로 협상 불가능한 사안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에 따라 줄곧 입장을 바꾸었던 사안이었다는 것이다. 이어 더하여 오덕수는 공창폐지연기를 위해 입법의원들에게 천만 원의 현금을 뇌물로 주는 부패행위까지 망설이지 않는다. 이러한 오덕수의 모습은 앞서 살펴본 안재홍 민정장관의 인터뷰를 떠올리게 하며, 공창폐지를 둘러싸고 얼마나 많은 뇌물 수수가 횡행했는지에 대한 소설적 재현을 통해 그 당시 우익 정치계에 대한 작가 김말봉의 비판적인 시선을 읽어낼 수 있다.

송난의 어머니 역시 오덕수와 마찬가지로 공창폐지연기를 지지하는 인물이다. 그는 과거에 기생이었으며, 유경석 지사의 첩으로 서녀 ‘송난’을 낳게 된다. 그는 유 지사가 남겨 준 재산을 불리기 위해 유곽에 투자한 인물로 ‘기생’과 ‘공창’

34 김말봉, 앞의 책, 2016, 95쪽.
35 김말봉, 앞의 책, 2016, 60쪽.

사이에는 얼마간의 차이가 있겠으나 송난의 어머니는 유곽의 여성들에게 연대하거나, 이들을 동정하는 대신 그 자신의 경제적 투자 수단으로만 여긴다. 결혼과 출산을 통해 한 가정의 아내이자 어머니가 되면 더 이상 성매매와는 무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듯한 송난 어머니의 태도는 작가 김말봉이 제시하는 공창 여성들이 가져야 할 미래상을 대변하는 것이기도 하다. 실제로 여러 칼럼에서 희망원의 목표가 여성들을 계도 및 갱생시키고 직업 교육을 시켜 "배우자를 택하여 결혼을 시킬 예정"[36]이라고 밝힌 바, 소설 속에서 송난의 어머니는 결혼하여 가정에 귀속됨으로써 '기생'이었던 과거를 완전히 '청산'하게 된 모습의 다름이 아니다.[37]

> 황진이는 이만큼 그들에게 있어 숭배의 대상이 되었다. 송난이가 어머니가 기생이었던 것을 일종의 자랑으로 생각하게끔 된 것은 분명 황진이의 시조를 배우기 시작해서부터였다. 그러한 송난은 최근에 적철의 논리를 들었다.
>
> "일체의 여인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몸을 팔고 있는 것이다. 기생이나 공창이나 시간적으로 몸을 파는 것이요 소위 양가의 주부는 종신토록 파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기생이나 공창은 사회에서 가장 불리한 대우를 받는다. 왜냐하면 기생이나 공창은 정식으로 남의 아내 될 자격이 박탈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우리는 그들 매춘부를 학대와 착취를 받는 계급으로 간주하고 우리와 꼭 같이 착취계급을 향하여 공동 투쟁할 맹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요."[38]

"창기조합에서 지금 입법 의원을 매수하려고 야단인데…… 어떻게 선수

---

36 김말봉, 「희망원의 사명」(『부인』,1권 3호, 1946.10), 앞의 책, 2018, 194쪽.

37 물론 그 당시 김말봉이 운영하던 희망원의 목표가 여성들의 교육 및 교화시켜 더 이상 사회를 위협하지 않는 정상 국민으로서 각 가정에 귀속시키는 것이었고, 이들이 주어진 재생산 노동을 무리 없이 수행할 때, '공창' 개인으로서의 문제가 완전히 완결될 것이라는 공창폐지연맹의 그 당시 입장은 논의할 바가 많겠으나 본고에서는 따로 논하지 않고 후속 연구의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38 김말봉, 앞의 책, 2016, 73쪽.

를 써서 돈을 좀 뺏는 것이 어떨까요. 어차피 창기조합에서 내 놀 돈이고…… 우리는 그 돈을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한다면…….”

적철의 눈에서 번쩍하고 불빛이 지나갔다.[39]

위의 인용된 적철의 말처럼 사회주의 정치 이념에 따른다면 공창제는 빠른 시일 내에 폐지되어야 하는 폐단이지만, 남한에서 활동하는 좌익 청년 단체의 지도부라고 할 수 있는 백웅은 정치적 혼란을 야기하기 위해서 공창폐지연기를 지지한다. 백웅의 지시를 받은 적철은 입법 의원으로 위장하여 창기조합의 돈을 매수하여 이들의 정치 공작을 적극적으로 방해한다. 이들은 입법의원을 사칭하여 오덕수에게 뇌물을 수수하고, 대부분의 돈을 사적으로 유용한다.

반면 송난은 좌익 이념을 지지하면서도 공창폐지연기에 반대하는 인물이다.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가장 합당하고 합리적인 이유로 공창폐지에 찬성하는데, 그는 “내게는 오직 내 계급이 있을 뿐이다. 학대받는 노동자, 농민 그리고 기생, 갈보, 창녀. 오! 나는 두 번 다시 흔들리지 않으리라.”[40]고 다짐한다. 여성들의 정조나 위생 및 보건의 문제, 사회의 위협요소 제거의 측면이 아니라 성노동 여성들에게 당면한 비윤리적인 노동과 인권, 계급 투쟁을 위해 공창폐지에 찬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송난의 다짐 이면에는 ‘서녀’라는 콤플렉스가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김일성이라는 기생이 스탈린과 붙어서 사생아 북한 괴뢰정부를 만들어 냈다는 사실보다 더 우리 역사를 더럽힌 일이 있었습니까?” (…)

“기생 김일성이가 온갖 요망과 아양을 떨면서 만들어 낸 북한 괴뢰는 이제 그 아비 강도 스탈린에게 반도의 한 토막을 갖다 바치려고 갖은 흉계를 꾸미고 있습니다.” (…)

“본래 기생에게서 난 아들이나 적자(嫡子)가 있는 이상 아버지에게서 상속을 받을 자격도 없고 정식으로 사당에 제사 참석도 못하는 법이요.” (…)

---

39 김말봉, 앞의 책, 2016, 110쪽.

40 김말봉, 앞의 책, 2016, 171쪽.

"우리 단군의 적자 삼천만은 기생의 몸에서 생겨난 서출(庶出)은 축축해야 합니다. 조상의 유업을 팔아먹으려는 기생의 소생을 쫓아내야 합니다." (…)

청중의 박수소리가 요란하였다. 단상에 있는 심사원들도 그리고 창열이 까지도 웃으며 박수를 보내고 있다.[41]

남한의 단독 선거를 앞두고 이루어진 전국 학생 현상 웅변대회에서 이루어진 위와 같은 연설을 듣고 송난은 분노한다. 어릴 적 첩의 딸이라는 이유로 아버지의 장례식에 제대로 참석할 수 없었던 일이 송난에게는 트라우마로 경험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그는 늘 자신이 기생의 딸이자 '서녀'라는 것을 의식적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기생의 딸'이라는 자신의 출신 때문에 황진이를 숭배하기도 하고, 창열을 '적자'라는 이유만으로 미워하기도 하는 것이다. 이런 송난에게 혈연에 기반한 가족주의를 내세우는 우익진영의 자리는 애초에 허락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송난이 좌익 이념과 더불어 공창폐지를 지지하게 되는 데에는 송난이 갖고 있는 '서녀' 정체성과 큰 관련이 있으며 자신을 서녀로 만든 사회 구조에 대한 분노가 틈입되어 있는 것이다.

『별들의 고향』의 전작인 『화려한 지옥』이 기생 '채옥'을 주부로 만드는 결말을 맺으면서 희망원의 운영 목표로 귀결되는 다소 보수적인 여성관을 견지했다는 한계를 보였다면, 『별들의 고향』에서 김말봉은 한 걸음 더 나아간 지점을 보여준다. 공창폐지 이후 등장하게 될 것이라고 예견하고 걱정했던 사창 '릴리'를 양공주로 등장시켰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양공주의 등장이 그 시작부터 공창폐지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공창폐지가 새로운 형태의 성매매를 만들어 낼 수 있음을 암시하며, 성매매에 대한 근본적인 사회적 인식과 윤리적 변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한다. 덧붙여 작가 김말봉이 공창폐지의 이면에 숨겨진 문제들을 펼쳐 놓으면서 그 다음에 나아갈 상황까지 예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작 『화려한 지옥』보다 공창폐지를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듯 김말봉은 『별들의 고향』에

41 김말봉, 앞의 책, 2016, 168-170쪽.

서 공창폐지운동이 단순한 사회적 운동이나 이념의 대립, 법적 차원을 넘어서 개인의 복수심 및 죄책감, 사회적 위선, 그리고 계급적 갈등이 중첩된 문제임을 보여줌으로써 공창폐지라는 주제를 보다 입체적으로 조명한다.

## 5 나가며

이 글은 공창폐지운동과 작가의 정치적 이념을 중심으로 이분법적으로 평가되어 왔던 선행 연구의 흐름에 의문을 제기하며 김말봉이라는 작가 개인의 이념과 텍스트 안에서 실제로 개진되고 있는 서사 양상 사이의 차이를 조금 더 섬세하게 독해하고자 한 시도이다. 김말봉의 『별들의 고향』에는 민주주의, 자유주의, 기독교주의, 반공주의로 대별되는 이념적 지향점이 존재하지만 그로부터 탈구되거나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온전히 회수되지 못한 채 분열되는 지점들이 발견된다.

소설 속에서 주의와 주의자, 신앙과 신도의 모습이 지속적으로 분리되는데, 사회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는 인물들의 입을 통해 이상적인 것으로 이야기되지만, 실제 정치적 주의를 자신과 동일시하는 주의자들의 이념과 실천은 지속적으로 분리된다. 좌익 진영에서는 정치적 이념 대신 개인의 원한이 더 우선시되는 모습이 포착되며, 우익 진영에서는 정치가 곧 종교로 대체되어 버리는 양상이 목격된다. 기독교주의에서는 종교적 실천 대상으로 좌익 인물들을 배제하고 있어, 이념적 가치를 뛰어넘지 못하는 종교의 한계를 드러낸다. 반공, 친미, 기복이 한국의 우익 진영의 중요한 이념적 자원으로 활용되는 과정 속에서 정치, 외교, 경제, 종교라는 개별적이고 고유한 이념들의 특수성이 제대로 고려되지 못한 채 모두 '반공'이라는 거대한 질서 속으로 빨려 들어갔으며, 이 모든 이념들을 단 하나의 질서로 받아 들여야 하는 주의자와 신도들에게서 그 주의 및 신앙과 분리되어 모순되는 지점들이 포착된다.

그 당시 공창폐지는 좌익과 우익진영에서 모두 합의한 주요 건국의제였지만, 실제로 공창제가 폐지되기까지는 여러 고초를 겪어야만 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공창제는 인본적 가치를 내세우면 당장 중지시킬 수 없을 만큼 경제적 맥락과 맞닿아 있는 사안이었기 때문이다. 김말봉의 여러 산문을 통해서도 공창폐지를 둘러싼 여러 목소리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는 공창폐지를 보건과 위생, 풍기문란

의 문제로 접근하면서도 그 당시 남한 사회의 실업 및 노동시장 등 구조적인 문제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이야기한다. 또한 공창폐지를 지지하면서도 공창폐지운동에 대한 미온적 태도를 보인 남한의 남성주의적 정치계를 비판하며, 공창폐지운동이 여성들의 문제로 게토화되었다는 사실을 폭로한다.

작가가 텍스트 안에서 전면적으로 부각하는 동시에 가치화하고 있는 이념 혹은 주제적 의미의 분열은 공창폐지운동을 경유했을 때 더욱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소설 속에서 전개되고 있는 공창폐지운동의 양상을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이념적 결과물로 해석하고자 했을 때 말끔히 설명되지 않는 잉여가 존재한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로 첫 번째, 소설 속에서 드러나는 좌우익의 이데올로기와 '정치', 이념과 실천 사이에는 분명한 분열과 모순이 존재하며, 이러한 분열이 곧 해방기의 특수성의 다름이 아니라는 것이다. 두 번째, 공창폐지운동은 정치적 이념으로 평가될 수 있는 사안이라기보다 이데올로기 갈등으로부터 격리된 이념적 무중력 지대에 가까웠으며, 여성문제와 경제담론, 정치담론이 교차되어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문제였다는 것이다. 덧붙여 공창제와 축첩제 사이의 연결고리를 조금 더 세밀하게 조명하고, 공창폐지 이후 이어지는 양공주의 문제를 살피는 것을 추후 연구과제로 남겨 놓고자 한다.

## 참고문헌


기본 자료

김말봉, 『김말봉 전집 6: 별들의 고향』, 진선영 편, 소명출판, 2016.

_____, 『김말봉 전집 8: 해방기 단편서사 모음』, 진선영 편, 소명출판, 2018.

『경향신문』, 『조선일보』

단행본

강준만, 『한국현대사 산책-1950년대 편: 6·25전쟁에서 4·19 전야까지 2권』, 인물과사상사, 2004, 113쪽.

송남헌, 『해방 3년사 I -1945~1948』, 까치, 1985, 225쪽.

논문

박선희,「김말봉의『佳人의 市場』개작과 여성운동」,『우리말글』제54호, 우리말글학회, 2012, 267-296쪽.

박정애,『일제의 공창제 시행과 사창 관리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2009.

배상미,「공창폐지 운동과 그 유산-김말봉의『화려한 지옥』과『별들의 고향』」,『현대소설연구』제92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23, 71-108쪽.

_____,「성노동자에 대한 낙인을 통해 본 해방기 성노동자 재교육운동의 한계-김말봉의《화려한 지옥》, 박계주의《진리의 밤》을 중심으로-」,『현대소설연구』제55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14, 313-350쪽.

서정자,「김말봉의『별들의 고향』(완본) 연구-한국전쟁과 반전(反戰)소설구조, 그리고 '별'과 '광명'의 의미」,『여성문학연구』제61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24, 207-245쪽.

이민영,「전후 여성 작가와 열전사회의 반공담론-김말봉의『별들의 고향』(1953)과 임옥인의『월남전후』(1956)를 중심으로」,『국어국문학』제202호, 국어국문학회, 2023, 137-175쪽.

이병순,「김말봉의 장편소설 연구-1945-1953년까지 발표된 소설을 중심으로」,『한국사상과 문화』제61호, 한국사상문화학회, 2005, 51-75쪽.

진선영,「한국전쟁기 김말봉 소설의 이데올로기 연구-〈별들의 고향〉을 중심으로-」,『겨레어문학』제55호, 겨레어문학회, 2015, 325-350쪽.

최미진,「광복 후 공창폐지운동과 김말봉 소설의 대중성」,『현대소설연구』제32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06, 97-120쪽.

최미진·김정자,「한국전쟁기 김말봉의『별들의 고향』연구」,『한국문학논총』제39호, 한국문학회, 2005, 293-322쪽.

최지현,「해방기 공창폐지운동과 여성 연대(solidarity) 연구-김말봉의『화려한 지옥』을 중심으로-」,『여성문학연구』제19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8, 267-292쪽.

기타

윤은순,「일제강점기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공창제도 폐지를 위해 전개한 사회운동」,『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024.11.15.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78007〉

## Abstract

Fragmentation of Ideology and the Abolition of Prostitution Movement in Kim Mal-bong's *Star's Home*

Min Seonhae

While prior research that has tended to view the licensed prostitution abolition movement through a binary lens centered on the author's political ideology, this study explored the internal contradictions of the licensed prostitution abolition movement as portrayed in Kim Mal-bong's *Stars' Home*. Although the abolition of licensed prostitution was a major nation-building agenda during the post-liberation period, it was more closely aligned with economic contexts than ideological or ethical concerns . Through various essays, Kim Mal-bong supports the abolition of licensed prostitution while critiquing the lukewarm stance of the male-dominated political sphere in South Korea, revealing how the movement was marginalized as a women's issue. While socialist and democratic values are presented as ideals through the voices of characters, the ideologies and practices of individuals who identify with specific political stances are persistently separated. This study examines the internal fragmentation of ideology that emerged through the abolition movement of licensed prostitution, illustrating that the abolition was a complex intersection of women's issues, economic discourse, and political narratives. The post-liberation period was not merely a time of left-right political confrontation but also a chaotic era in which both the left and right were internally fragmented.

Key words: Kim Mal-bong, abolition movement of licensed prostitution, licensed prostitution system, *Stars' Home*, democracy, democratism, socialism, ideological conflict, ideological fragmentation.

논문투고 / 2024.11.22.
심사완료 / 2024.12.03.
게재확정 / 2024.12.08.